

김요수필

신앙·믿음으로 살아낸 여동생의 장한 삶을 회고하며

지난 1월 28일 늦은 밤, 나의 바로 밑의 여동생이 소장 중앙이라는 긴 병마를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만호 수필가

나보다 나이가 세 살이나 어린 여동생의 죽을 앞에서 나는 삶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다.

여동생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손에 접이 있어 절속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지어주시어 불리었던 여동생은 기독교에 귀의한 후 이순종으로 이름을 고쳤다.

성 서울병원에서 오랜 입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치이는 모두 빠져 합죽이 할머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여동생의 굳건한 그 믿을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른 몸을 이끌고 죽기 얼마 전까지도 빌딩 청소 일을 하며 어려운 생활에 도음이 되고자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여동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여동생의 생을 떠올리며 나는 생각해 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낸 그 시간이 바로 한 인간의 값진 삶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오빠로서 형편이 어려운 여동생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에 회한으로 남는다.

한평생을 교도관으로 이권과는 무관한 삶 속에서 강직한 공무원의 삶을 지켰던 것이 나의 자랑이면서도, 여동생의 고단한 인생 앞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이제 나 또한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동생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승의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았으리라 생각한다.

수많은 불면의 밤과 새벽기도로 살아낸 험난한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마음 편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남은 우리는 여동생의 꺾기지 더 성실하게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만 여동생에게 빛을 갠 일일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더 아끼고,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어필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여동생에게 우리가 갠아 할 빛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녀린 여성의 몸에서 강단 있는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과 맞서서 조금도 지지 않고 버텨낸 여동생의 삶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낸 여동생의 지남한 삶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 오늘 하루를 우물하게 만들어 나보다 먼저 간 여동생 생각에 몇 자 적어본다.

사설 코스피 5000선 종가 안착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돌파해 K증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외국인 과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며 장중 급락을 딛고 강한 반등에 성공했고, 반도체 대형주의 초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8%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80만원선에 올라섰고, 삼성전자 역시 4% 대 강세로 16만원선에 박박 다가섰다.

코스닥도 기관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1080선을 넘어서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코스닥 역시 강세를 이어갔다. 전날 종가 기준 1000선을 넘어선 코스닥지수는 이날 18.18p(1.71%) 오른 1082.59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누적 5조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갔다.

최근 이어져온 외국인 자금 유입 흐름에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반도체 업종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5000p 돌파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가동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레벨업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북대 기숙사 문제

유학생 유치 실적을 채우려다 내국인 학생을 홀대했던 전북대학교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담장 기숙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학생들도 3명이 한 방을 써야 하는 조건이다.

글로벌 대학30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미 유학생 2,300명 우선 배정이 확정된 터라, 2인용 기숙사에서 탈락하면 크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장 개강까지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2인실에서 3인실로 바꾸면 각 방에 책상을 놓기 힘들다.

기숙사는 20제곱미터 남짓한 방이 침대와 책상, 옷장으로 딱 차 있다. 예초 2인실로 설계된 곳인데, 이제는 4명이 함께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대학 사업을 맡고 있는 교육부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선을 긋는다.

외국인 유학생이 살게 될 기숙사는 대동관과 혼산전지하우스, 그리고 참빛관 일부로 결정됐다. 한국의 선진 교육 환경을 기대했던 유학생들에게엔 황당함을 넘어 사기극에 가깝다.

세부적인 기숙사 수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다.

대학은 참빛관 일부를 재학생에게 배정하며 '선택의 기회'를 준

정부와 대학이 1,000억 원짜리 실적 쌓기에 매몰된 사이, 학생들의 기본권은 사소한 '디테일'로 치부되는 게 글로벌 대학의 민낯이 되고 말았다.

독자제언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작은 주의가 평온 지킨다'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하지만 들뜬 명절 분위기를 틈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노리는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두 번째, 스미싱(Smishing)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저희 경찰도 명절 기간 시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